

페퍼스 장소연 감독 “포기하지 않는 모습 보여드릴 것”



도드람 2024-2025 V리그 여자부 미디어데이
AI페퍼스 주장 박정아 “봄배구 하고 싶다”

페퍼저축은행 AI페퍼스의 사령탑 장소연 감독이 ‘몽구스’라는 키워드로 이번 시즌 출사표를 던졌다. 한국배구연맹(KOVO)이 16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도드람 2024-2025 V리그 여자부 미디어데이’를 개최했다.

미디어데이에는 장소연 감독과 주장 박정아, 아시아쿼터 장위를 포함한 V리그 여자부 7개 구단의 감독과 국내선수, 외국인 선수들이 자리해 다가올 시즌 활약을 예고했다.

‘몽구스’를 키워드로 제시한 장소연 감독은 “몽구스는 몽구스구에 속한 파이터 기질을 가진 동물이다. 그 동물은 두려워하지도, 포기하지도 않고 끝까지 달리는 특징이 있다”며 “우리 팀도 이번 시즌 그런 모습을 보여드릴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장소연 감독은 올 시즌 봄배구에 대한 자신감도 보였다.

그는 “페퍼스도 컵대회에서 보여줬던 경쟁력이 있다. 아시아쿼터 장위(196cm)와 외국인선수 자비치(191cm)의 높이를 앞세워 이번 시즌 열심히 해보겠다”고 언급했다.

‘주장’ 박정아도 봄배구를 그렸다.

박정아는 “우리 팀이 계속 하위권에 계속 있었다 보니 올 시즌 잘해서 챔피언 결정전에 가고 싶다. 챔피언 결정전에 오르는 상상만 해도 즐겁다”고 주장으로서 솔직한 심정을 전했다.

박정아는 장위와 함께 “페퍼스의 매운 맛을 보여 주겠다”는 의미의 핑그린 표정과 함께 손 부채질을 하는 세리머니를 선보이기도 했다.

사령탑들이 짚는 ‘우승후보’는 지난해 통합우승 팀 현대건설이었다.

7개팀 감독이 2표씩 행사해 진행된 익명 투표에서 현대건설은 7표를 획득했다. 이어 정관장이 3표를 받았다. ‘막내’ 페퍼스는 득표에 실패했다.

대신 페퍼스는 4표를 받으면서 ‘올 시즌 신설된 그랜드카드를 가장 많이 받을 것 같은 팀’에 선정됐다.

장 감독은 “지난 통영·도드람 컵대회에서 남녀부 통틀어 우리 팀에서 최초로 그랜드카드가 나와서 투표 결과가 이렇게 나온 것 같다”며 “페어플레이 정신으로 선수들이 경기 지연을 막고자 그랜드카드를 받는 것이기에 4표를 받은 것에 대해 좋은 의미로 생각한다”고 긍정적인 반응을 내비쳤다.

앞서 페퍼스 이예림은 지난 3일 GS칼텍스와와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도드람 2024-2025 V리그 여자부 미디어데이에서 페퍼저축은행 AI페퍼스 장소연 감독이 출사표를 던지고 있다. (왼쪽) 페퍼저축은행 AI페퍼스 선수단 대표로 참석한 박정아와 장위가 출사표를 세레모니로 표현하고 있다. /연합뉴스

컵대회에서 한국 프로배구 최초 그랜드카드의 주인공이 됐다.

사령탑으로 처음 미디어데이 행사에 참가한 장 감독은 정관장 교회진 감독과 남다른 친분을 보여줬다.

교회진 정관장 감독은 ‘챔피언 결정전에 올라갔다고 가정했을 때 만나고 싶은 상대’로 페퍼스를 꼽았다.

이에 대해 장 감독은 “사석에서는 누나·동생하는 사이다. 동생아 (지명해줘서) 고맙다”며 “지명받아 영광스럽고 나 역시 페퍼스가 챔피언 결정전에 가게 됐다면 그 상대는 정관장이라고 생각한다. 미들블로커 출신 감독끼리 같이 붙어보고 싶다”고 화답하며 훈훈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한편 2024-2025시즌 정규리그는 2025년 3월 20일까지 6라운드 일정으로 남녀부 각 126경기씩

총 252경기가 진행된다.

V리그 여자부는 오는 19일 오후 4시 수원실내체육관에서 현대건설과 흥국생명의 맞대결로 막을 올린다. 페퍼스는 22일 오후 7시 김천실내체육관에서 한국도로공사와 첫 경기를 치른다. 이후 페퍼스는 25일 오후 7시 페퍼스타디움에서 정관장을 상대로 홈개막전을 치른다.

/서민경 기자 minky@kwangju.co.kr

광주시청 육상 고승환, 전국체전 4관왕...MVP 보인다



광주시청 육상 고승환이 제105회 전국체전 4관왕을 달성했다. <광주시체육회 제공>



왼쪽부터 남수현, 최미선, 순천시청 임동일 감독, 이은경, 유시현이 제105회 전국체전 여일부 리커부 단체전 금메달을 획득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전남도체육회 제공>

광주, 고승환·근대5종 계주 1위 전남 양궁 선수단 단체전 금메달

제105회 전국체전 폐막일을 하루 앞둔 16일 광주시청 육상 고승환이 대회 4관왕에 등극했다.

고승환은 16일 김해종합운동장에서 열린 대회 육상 남자 1600m 계주에서 이재성, 모일환, 장지웅과 호흡을 맞춰 3분10초81로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하며 금메달을 차지했다.

200m(대회신)와 400m 계주(대회신), 1600m 혼성계주(한국신)에 이어 1600m 계주에서도 금메달을 목에 건 고승환은 대회 4관왕에 오르며 유력한 올해 체전 최우수선수(MVP)로 떠올랐다.

올해 전국체전 MVP는 17일 기자단 투표로 선정된다.

광주시청 근대5종팀은 계주(4종)에서 1위를 기록했다.

전용태·성진주·김영석이 합을 맞춘 광주시청은

경남 체육고등학교에서 열린 남일부 계주(4종)에서 총 1158점(펜싱 220점, 복합 642점, 수영 296점)을 획득하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앞서 14일 개인전(4종)에서도 금메달을 획득했던 전용태는 이번 우승으로 대회 2관왕에 올랐다.

전남 광양여고 여자축구부는 지난해 대회에 이어 다시 한번 정상에 오르며 2연패에 성공했다.

광양여고는 이날 함안스포츠타운 풋구장에서 열린 축구 여자18세이하부 결승에서 현대고(울산)를 상대로 3-1 승리를 거두며 우승을 차지했다.

광양여고는 부전승으로 8강에 오른 뒤, 충남인터넷고(충남)를 4-0으로 제쳤고, 4강에서 포항여자전자고(경북)에 1-0으로 승리하며 결승에 진출했다.

전남 양궁 선수단은 단체전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은경·유시현·남수현(이상 순천시청)·최미선(광주은행 탄탄양궁단)으로 팀을 이끈 전남 양궁

은 이날 진주공공교육사령부연병장에서 열린 여일부 단체전 결승에서 경북(삼다경·강고은·조수빈·이혜진)을 상대로 6-0으로 승리하면서 1위에 올랐다.

여자 육상 기대주 이은빈(전남체고)은 이날 1600m 계주 금메달을 목에 걸면서 3관왕(1600m·100m·200m)에 올랐다.

최미선·신규리·이은빈·박채경이 합을 맞춘 전남체고 선수단은 이날 김해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여자18세이하부 1600m 계주 결승에서 3분50초81을 기록하며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다.

한편, 지난 11일부터 경남 김해 일원에서 개최된 이번 전국체전은 17일 경기를 끝으로 막을 내린다.

광주-전남 선수단은 대회 마지막 날 나란히 축구 정상을 목표로 달린다. FC포포(전남)는 강릉시민축구단(강원)과 남일부 결승전을, 조선대(광주)는 울산대(울산)와 남대부 결승전을 펼친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파리올림픽 스타들, 전국체전에서도 빛났다

양궁 임시현 4관왕...양궁 김우진·남수현, 높이뛰기 이상혁 등 금

제105회 전국체전에서 2024 파리 올림픽 스타들의 활약이 이어졌다.

파리 올림픽 양궁 3관왕에 올랐던 임시현(한국체대·서울)은 이번 체전 4관왕에 등극했다.

임시현은 16일 열린 양궁 대회 여대부 단체전과 개인전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다. 앞서 임시현은 50m에서 대회신기록(347점), 60m에서 세계타이 기록(355점)을 세우며 정상에 올랐다.

‘파이팅 막내’ 김제덕(예천군청)은 체전 2관왕에 올랐다.

김제덕은 지난 12일 90m 1위에 이어, 16일 남일부 개인전에서도 우승을 차지했다.

한국 양궁 남자대표팀 ‘말형’ 김우진(청주시청)은 50m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다.

한국 여자 양궁 올림픽 단체전 10연패 신화에 이름을 올렸던 남수현은 16일 이은경(이상 순천시청), 최미선과 함께 전남 대표로 나선 여일부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한국 수영간판’ 황선우(강원도청)는 이날 파리 올림픽에서도 좋은 성적을 내며 체전 4관왕(자유형100m·자유형200m·계영400m·계영800m)에 올랐다.

황선우는 경남 창원실내수영장에서 열린 대회 경영 자유형 100m 남일부 결승에서 48초12로 금

메달을 목에 걸었다.

황선우는 파리 올림픽 남자 자유형 100m 예선에서 48초41로 16위를 하며 준결승 티켓을 확보했으나 기권한 바 있다.

지난 14일 열린 자유형 200m에서도 황선우는 파리 올림픽 기록(1분45초92)을 넘어선 1분45초03으로 우승을 차지했다.

‘스마일 점퍼’ 이상혁(용인시청)은 육상 필드 남일부 높이뛰기 결승에서 2m21의 기록으로 1위에 오르며 개인 통산 9번째 우승을 기록했다.

이상혁은 파리 올림픽에서 메달을 목표로 했지만 2m27로 7위를 하며 아쉬움을 삼켰었다.

그는 이번 체전에서 부상없이 ‘좋은 점프’를 한 것에 만족하며 1차에서 실패한 2m27에서 2·3차 시도 없이 스스로 올해 마지막 대회를 마무리했다.

파리 올림픽 펜싱에서 2관왕에 오른 오상욱(대전시청)은 이번 체전 사브르 남자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따냈다.

사격 금메달리스트 오예진(IBK기업은행·제주)은 사격 여자 일반부 10m 공기권총 본선에서 가장 높은 585점을 쏘며 결선에 진출한 뒤 결선에서 242.8점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유해란·리디아 고, LPGA BMW 챔피언십 격돌

1라운드 동반 플레이

이번 시즌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한국 선수 중 가장 돋보이는 활약을 펼치는 유해란이 국내에서 열리는 유일한 LPGA 투어 대회 첫날 리디아 고(뉴질랜드), 이민지(호주)와 동반 플레이 나선다.

16일 LPGA 투어가 발표한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총상금 220만 달러) 1라운드 조편성에 따르면 유해란은 17일 오전 10시 22분 경기도 파주의 서원밸리 컨트리클럽 서원힐스 코스(파72) 1

번 홀에서 리디아 고, 이민지와 경기를 시작한다.

지난달 초 FM 챔피언십에서 우승하며 LPGA 투어 2승을 보유했던 유해란은 이번 대회에서도 주목받는 한국 선수다.

이번 시즌 21개 대회 중 10차례 톱10에 진입한 그녀는 CME 글로벌 포인트 순위(2259.39)와 올해의 선수상 포인트(101점)에서 모두 4위를 달리고 있다. 상금도 5위(231만4839달러)를 달리고 있다. 국내 팬 앞에서 이번 시즌 ‘다승’에 도전하는 유해란은 첫날부터 투어의 강호들과 경쟁한다.

/연합뉴스

즐거움

문화 산책

광주예술의전당 문의 062)613-8233

GAC 공모전시 고정희 개인전
: 황혼의 찬란한 여정

일시 : 2024-09-24(화) ~ 2024-10-27(일)
공연 있는 날 10:30 ~ 19:30
공연 없는 날 10:00 ~ 18:0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갤러리
문의 : 062-613-8357

2024 광주상설공연(10월)
일시 : 2024-10-05(토) ~ 2024-10-31(목)
매주 토요일~일요일 오후 5시
* 10.31.(목) 오후 7시 기획공연
(강하달림 시월 Blues)
장소 : 광주공연마루
문의 : 062-613-8379, 8372

황혼의 찬란한 여정
고정희 개인전
2024. 9. 24. 10. 27.
광주예술의전당